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도내 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및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청은 4~1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문 예술단체만 가능하다.

먼저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의 지역 내 일상적 확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예술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 운영 방식에 따라 상설형과 순회형으로 나뉘며, 각각 1개 단체씩 선정할 예정이다.

'상설형'은 12회 이상 공연 추진을 조건으로 1억 원, '순회형'은 8회 이상 공연을 조건으로 6천만 원이 각각 정액 지원된다.

이어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은 도내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유형은 해외 예술인을 초청하는 '국내 초청형 교류'와 '국제 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국외 진출형 교류' 등이며, 8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와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는 도내 예술 단체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창작지원팀(063-230-7446, 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 상영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영화협회 8개 지역별로 장편 1편 · 단편 1편씩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 상영작을 공개했다.

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는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지역 독립영화계의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의미 및 중요성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함께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강원, 광주, 대구·경북,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의 독립영화협회와 함께하며, 8개 지역 독립영화협회의 의견을 모아 지역별로 장편 1편, 단편 1편씩 선정해 총 8편의 장편과 8편의 단편이 상영된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로 비롯한 전주 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 관광 발전 '맞손'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연구원, 협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3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지속가능한 전북의 문화 ·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 관광 분야의 아젠다 발굴 △연구사업 협력 △문화 · 관광 산업 육성 △도민 삶의 질 향상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체결 후에는 문화 ·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도 가졌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 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반기에도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3일 전북연구원과 지속가능한 전북의 문화 ·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소풍 함께할 기업 파트너 모집

30일까지 문의... 6월 6~8일 개최

푸른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6월의 영화 축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열세 번째 여정을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모집한다.

설렘 가득한 영화 소풍길을 따라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어울림의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개최 일정과 함께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드높인 가운데 함께할 기업 파트너를 오늘부터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2013년부터 10여 년간 엄선된 국내외 영화와 함께 특색 있는 영화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안착,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자연 속 예술 문화 체험이라는 고유 특징을 유지하며 매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문화 파트너로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 사업운영팀(이메일 management@mjff.or.kr / 전화 063-245-6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현금 또는 현금 후원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로도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 파트너에게는 올해 영화제 기간 동안 기업 광고 영상 노출 및 공식 홍보물을 통한 광고, CI 노출,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노출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초여름의 영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 파트너를 모집하며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나선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문화누리카드 파트너 가맹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할 파트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4~11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지원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zzwre@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도내 업체다. 이중 문화 · 관광 분야에서는 카드리더가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홍보 분야에서는 상품에 관한 전화 결제와 택배 배송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가맹점에는 프로그램별 참여 기

회 제공,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맹점 혜택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촉진 기획프로그램 누리미'는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혜자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카드 사용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트럭), 문화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이동이 어려운 수혜자를 위한 전시장 초청 관람 지원, 홍보 책자 제작, 지역 특화 관광 투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교육문화팀(063-230-7451, 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복단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